

보다 더 많은 판단의 근거를 모으기 위해 조금 더 환자의 주 증상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필요로 한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의과대학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논리의 전개가 아닌 그저 그의 이름만이 허무하게 쓰인다. 님은 아닌 의과대학생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mnemonic(단어나 문장의 첫 글자 등을 따서 말을 만들어 기억을 돕는 연상법)'을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불러보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특히 통증과 관련된 증상의 특징을 알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환자가 두통, 복통, 허리통증, 생리통 등 통증을 주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사들은 소크라테스를 사용하여 통증의 성질을 규명하는 첫 번째 노력을 한다. 즉, SOCRATES에서 S는 Site(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어디인가?), Onset(통증이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느껴졌는가?), 처음엔 무시할 정도였으나 점점 더 심해졌는가?, C는 Character(지속적인 통증인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통증 인가?), 그리고 R은 Radiation(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는 것처럼 통증이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가?), A는 Alleviating factors(어떤 경우에 통증이 완화되는가?), T는 Timing(언제부터 통증의 증상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는가?), E는 Exacerbating factors(어떤 경우에 통증이 악화되는가?) 마지막으로 S는 Severity(통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가? 수면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현재에도 의사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부터는 환자가 이야기한 주 증상을 중심으로 연관된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 그저 진단절차의 빙산의 일각만을 보았을 뿐이다. 앞으로도 환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 최종 진단의 의사결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History Taking에는 환자의 현재 증상도 면밀히 들어야 하지만 환자의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여정이 또한 중요하다. 'Past History'라고 하는 과거병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차례이다. 이전에 치료받고 있는 다른 질병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수술한 적이 있는지, 임신과 출산력은 어땠는지, 수혈한 적이 있는지 등...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리고 Family history, Social history 등을 넘어 Review of System(계통문진)이라는 단계까지 가야 겨우 1단계를 마치게 된다. 참 어려워 보인다.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수많은 History가 있다.

사람이 태아 시절, 기능을 하는 오감 중 첫번째 감각이 듣는 것이고, 실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감각이 듣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첫 만남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잘 들어야 좋은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잘 들어야 좋은 치료가 가능하다. 듣기 위해 진료실로 향한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온다. 또 다시 첫 만남이다. History Again.



기독교세계관을 만나다

26살. 진료를 찾아 방황하다가 뒤늦게 기독교교육 학과로 편입하여 수강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우습지만 나는 그때 '기독교세계관'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과목소개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특별히 '관점', '세계관', '세상'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워 보였다. 그래서 클릭. 그렇게 기독교세계관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첫 수업부터 문화적 충격이 있었다. '보로로'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평가? 지난 학기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예세이 주재였다. 아직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단어도 어색했던 시기였는데, 보로로를 뭐 어떻게 한다고?! 유아 프로그램인 '보로로'까지 기독교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다. 그렇다면 '포르노'도 기독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또(또)보로노와 발음이 비슷한 보로로 때문에 이런 장난스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런데 그 불온한(?) 생각이 머리를 쳤다. '아니, 보로로나 보로노나 똑같은 영상매체고,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집중력을 갖게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심지어 중독성까지 같잖아! 그렇다면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만 포르노도 기독교세계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작된 호기심은 좀처럼 머릿에서 떠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수업 내내 이 생각뿐이었다. 교수님이 수업



김명규 아세이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영어과정(AOS)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목회학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CTC(크리스천빙킹센터, 대표 유경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며 신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종교투부 이들과 좀 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별히 크리스천 성교육을 연구하며 대한학교와 교회 수련회에서 특강으로 섬기고 있다.



을 정리하며 말씀하셨다. "특별히 기독교세계관적 평가를 위해 에세이를 쓸 때는 주제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주제라면 더욱 좋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수님께 찾아가서 물었다. "그렇다면 교수님.. 주제로 포르노를 선정해도 됩니까..?" "그럼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내가 남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포르노가 아니었던가. "나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동을 꺾을 수 없는가?" 이 부끄러운 질문으로 씨름하던 나에게 이번 에세이가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시작했다. '포르노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평가.' 누군가에게는 이 제목 자체가 뽀로로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 에세이의 개요를 잡으면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세계관의 틀을 알게 되었고 그 틀을 가지고 포르노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실 타락파트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포르노는 무엇보다 성(sex)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성과 관련된 범죄는 우리 주변에 넘쳐 난다. 포털 사이트에서 '성범죄'를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근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급증했다는 기사였다. 타락은 밀도 끝도 없이 진행 되는 것만 같았다.

19

타락 파트와 달리 창조 파트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창조)하신 성의 모습은 마치 아동을 보지 않는 남학생을 찾는 것만큼 희귀해 보였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성에 관련된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성을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사탄이 성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비틀어지고 왜곡된 것이다.



구속 파트에서는 그 비뚤어진 성(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요구된다. 빗집 지고 세상의 타락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창조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씨워야 하는 것이다. 구속 파트의 예를 찾으려 발간한 놀라운 교회가 있었다. 바로 미국에 있는 'XXX Church'인데 그 교회 목사님 두 분은 포르노 박람회에서 자신들의 부스를 만들고 박람회에 찾아오는 포르노 구입자들에게 복음책자를 나눠 주고 있었다. 포르노 박람회 '밖'에서 대적기도를 하며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Jesus Loves Porn Star(예수님은 포르노 스타를 사랑하신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안'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모습이 굉장한 인상적이고 도전이 되었다. 그들은 개인의 순결만을 고수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에세이를 마치면서 나의 생각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과 달리 포르노에서 묘사되는 성이 얼마나 도구적으로 쓰이는지를 발견하였다. 포르노는 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의 의미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었다. 이러한 성의 창조도를 모르면 단순히 금지로만 일관할 수밖에 없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포르노의 타락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소중함이었다. 학기 말에 에세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그 발표를 계기로 CTC기독교세

계관 교육센터(유경상 대표)의 초대를 받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독교세계관 성교육'을 강의하게 되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대안학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특강을 이어 가고 있다. 가장 감사한 점이 있다면 에세이를 쓴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마치 안경을 쓰기 전과 후의 시력 차이를 느끼듯 주변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다. 뽀로로와 포르노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던 나의 사선에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었다. (지금도 그런 세계관의 영향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문화에서 자리에서 목사나 선교사 같은 복음적인 일은 선하고,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다. 음악을 들을 때도 CCM만 듣고, 책을 읽을 때도 늘 신앙서적이 편중되어 있었다. 세상을 틀로 나누고 그중에 거룩해 보이는 쪽만 선택하며 살아 왔던 것이다. 하지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가 보여 준 세상은 버려야 할 세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 보인다고 할 지라도 포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세계관의 틀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 속의 '희망'과도 같았다. 심지어 포르노까지도 포괄할 만큼 넓은 희망이었다! 